



Hello. I am Sister Ann Infanger, the third and youngest child of Louise and Adolph Infanger, born in 1933 in Maplewood, New Jersey. As a high school senior I wanted to go to a Catholic college. I chose Seton Hill College because our Sisters of Charity were very friendly when I visited the college with my parents. During my 4 years of college I majored in biology under our excellent teachers. In senior year I decided to have a Lenten practice of spending 5 minutes a day in the chapel of the college. A new idea came to me. It would be exciting to devote my life to getting to know God because God is always greater than any person

or thing. When I went home for Easter that year my parents asked me what I planned to do in the summer. I said I was thinking more long range. I wanted to become a Sister. My father said, "We have been expecting it for years." I was the first family member to go to a Catholic school and I always liked religion.



In 1956 I join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fter the novitiate I went to Cornell University and earned a Ph.D. in Genetics in 1963. I returned to Seton Hill College and taught biology



courses. It was fun teaching courses for majors and encouraging them to do research in genetics of a bread mold. For non-science majors I taught "Heredity, Evolution, and Society." After retiring from science teaching in 2005, I studied Pastoral Ministry and earned a certificate. This prepared me to teach freshman religion and a liberal arts senior seminar on the theme of happiness. In 2019 I stopped teaching all together. I also was faculty

advisor for the Respect Life Club and a volunteer helping at the food pantry in the Christian Layman Thrift store. Beginning in 1972 I have been active in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and was the liaison with our bishop.

During my years at Seton Hill I lived with our Korean Sisters who went to Seton Hill to earn their college degrees. It was a gift to be able to help them and to learn from them. When our Korean sisters first visited Seton Hill, I felt honored to show them the chapel of Seton Hill College.

Now I am living at our motherhouse, Caritas Christi, and emphasizing intercession for peace throughout our world.

We help each other in the age of Covid-19 and live in Hope.





안녕하세요. 앤 인팡거 Ann Infanger 수녀입니다. 저는 1933년 뉴저지주 메이플우드Maplewood에서 아버지 아돌프 인팡거Adolph Infanger와 어머니 루이즈 Louise 슬하에 셋째이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가톨릭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때, 부모님과 함께 씨튼 힐 대학을 방문했는데, 수녀님들이 무척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씨튼 힐 대학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시절 4년 동안 훌륭한 교수님들 지도 아래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사순 시기 동안 실천사항으로 매일 5분씩 학교 성당에 머무르며 기도하기를 정했어요. 그러면서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니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내 삶을 봉헌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 부활절을 지내러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여름 방학 계획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좀 더 멀리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럴 거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족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가톨릭 학교에 다녔고, 종교 과목을 늘 좋아했었거든요.

1956년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련기를 보내고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 들어가 1963년에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씨튼 힐 대학으로 돌아와 생물학을 가르쳤어요.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빵곰팡이 유전 연구를 가르쳤고,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유전, 진화 그리고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2005년 과학 교육에서 은퇴한 후에 사목분야를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 자격으로



신입생들에게 종교 과목을 가르치고, 행복을 주제로 한 인문 교양 세미나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지요. 2019년에는 이 과목 수업에서도 은퇴했습니다. 또, 생명존중 동아리 Respect Life Club의 자문 교수였고, 크리스천 레이맨 Christian Layman 중고 상점에서 하는 무료 식품 나눔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1972년부터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Catholic Charismatic Renewal에 활발하게 참여해왔고 주교님과 연계하는 연락 담당을 맡았어요.

씨튼 힐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저는 씨튼 힐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수녀님들을 도울 수도 있고, 수녀님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선물이었지요. 또, 한국 수녀님들이 처음 씨튼 힐을 방문할 때면 수녀님들에게 씨튼 힐 대학의 성당을 보여주는 일이 큰 영광이라고 느꼈어요.



지금은 모원인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살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19시대에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희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